

【논 문】

## 이기영의 『처녀지』 연구\* -남표와 선주의 죽음을 중심으로-

이 경 재\*\*

### ┃ 차 례 ┃

1. 서론
2. 이념적 연애가 낳은 선주의 죽음
3. 공동체와 연대성의 특권적 지점으로서의 노동
4. 개인이 소거된 공동체의 비극
5. 결론을 대신하여 -남표와 선주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

### 국문초록

『처녀지』는 일제 시기에 창작된 이기영의 마지막 장편소설로서, 일제 말기에 작가가 열정적으로 펼쳐 보였던 생산력주의의 완성과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기영은 서사의 표면에서는 국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생산소설의 기본 성격에 충실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일제 말기의 국책이 전혀 불가능한 기획임을 강하게 환기시킨다. 그리하여 『처녀지』는 분열된 텍스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열과 균열은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남표와 선주의 죽음을 통하여 드러난다.

남표, 신경아, 이선주의 연애는 남녀의 이념과 사랑이 일치하는 이념적 연애의 모습을 보여준다. 『처녀지』에서 사회주의적 연애의 구조와 메커니즘은 그대로이지만, 그 이념은 사회주의가 아닌 만주개척이념으로 변한다. 선주의 죽음은 이념적 연애의 메커니즘 속에서 발생한다. 선주가 호화로운 도시 생활에 빠져 있는 이기주의자일 때, 그녀와 남표의 사이는 한없이 멀

\* 이 연구는 2011년도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수밖에 없다. 이후 선주가 정안둔에서 활동하는 남표의 여러 가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할 때, 선주는 남표와 결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선주가 남표와 결합을 시도하는 순간, 선주는 남표와 경아의 동지적 관계에 개입하게 되고, 이것은 남표와 경아 사이를 방해하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주가 새롭게 획득한 만주개척이념에 부합하면서도 남표와의 사랑을 유지하는 길은 자살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향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남표는, 조선에서 전망을 찾지 못한 사회주의자들이 오죽협화론과 왕도낙토론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삼은 만주국에 커다란 기대를 가졌던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이다. 『처녀지』에서 남표가 정안둔 마을에서 실천하는 운동들도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만주에서 꿈꾸었던 여러 가지 기획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처녀지』에서는 노동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남표를 통해 나타나는 노동과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사회주의와 이기영 문학의 내적인 연속성 측면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와 연대성의 특권적 지점으로서의 노동이라는 이상과 관련된다. 『처녀지』는 철저하게 개인과 공동체라는 이분법에 바탕해 있으며, 이 중 강조되는 가치는 공동체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남표도 만주개척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위해 철저히 도구화된다. 이기영의 일제 말기 생산소설에서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노동의 강도와 공적인 가치를 향한 헌신은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고, 결국 『처녀지』의 남표는 죽음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표의 죽음은 이기영이 만주를 배경으로 꿈꾸었던 기획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강하게 드러낸다.

주제어 : 이기영, 일제 말기, 생산력주의, 이념적 연애, 공동체, 죽음

## 1. 서론

이기영은 1940년대에 들어 맹렬한 작품활동을 보인다. 그는 10여 편의 단편 외에도 장편소설로 『대지의 아들』(『조선일보』, 1939. 10. 12.~1940. 6. 1.), 『봄』(대동출판사, 1942), 『동천홍』(『춘추』, 1942. 2.~1943. 3.), 『생활의 윤리』(성문당, 1942), 『광산춘』(『매일신보』, 1943. 9. 23.~11. 2.), 『처녀지』(삼중당서점, 1944) 등을 발표한다. 이 중에서 『처녀지』는 일제 말기 이기영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그

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작품이다.<sup>1)</sup> 그럼에도 지금까지 『처녀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텍스트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의 시각이 확립되지 못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립은 일제 말기 이기영이 쓴 작품들을 논의하면서 『처녀지』가 생산 소설과 만주개척소설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통속적인 연애담이 가미되었다고 보고 있다.<sup>2)</sup> 이선옥은 처녀지가 “우생학 담론을 중심으로 민족(인종)과 성별의 서열화를 결합”<sup>3)</sup>시켰으며, 우생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제국주의의 출산 통제 논리에 동화되어 간 특이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김진아는 집요할 정도로 “당시 일제의 정책이 어떻게 작품 속에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작품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제국주의 파시즘의 논리를 밝히”<sup>4)</sup>고 있다. 조진기 역시 이기영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책을 문학으로 실천했던 사람”<sup>5)</sup>라는 판단하에 『처녀지』와 국책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다. 이경훈과 정종현은 이기영 소설이 ‘의사-제국주의적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파악한다. 만주를 야만으로 설정함으로써 식민지인이라는 상황을 상상적으로 벗어난다는 것이다.<sup>6)</sup>

1) 이기영은 『처녀지』 발표 이후, 『방송지우』에 원고지 30매의 분량으로 『장끼』(1945년 4·5월 합본호)라는 방송소설을 발표한다. 본격적인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분량, 작품의 수준, 수록 매체가 모두 수준 미달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처참한 전시상황으로 빠져들던 당대 현실과는 달리, 정용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 행복한 가정을 다시 꾸린다는 일종의 판타지를 선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제 시기 이기영의 마지막 본격 소설은 『처녀지』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2) 이미립, 1999, 『월북작가 소설연구』, 깊은샘, 145~165쪽.

3) 이선옥, 2003, 『우생학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젠더 정치 - 이기영의 『처녀지』를 중심으로』, 『실천문학』, 2003년 봄호, 95쪽.

4) 김진아, 2003, 『이기영 장편소설 『처녀지』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3쪽.

5) 조진기, 2006, 『만주개척과 여성계몽의 논리 - 이기영의 『처녀지』를 중심으로』, 『어문학』 91집, 한국어문학회, 504쪽.

6) 이경훈, 2003, 『만주와 친일 로망티시즘』, 『오빠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271~297쪽 ; 정종현, 2006. 4, 『1940년대 전반기 이기영 소설의 제국주의적 주체성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21~151쪽. 이들 외에도 많은 논자들이 남표의 계몽적인 태도를 제국주의적 주체와 관련시키고는 한다. 그러나 의사제국주의적 주체의 모습이라 불리는 남표의 모습은, 친일 소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향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경향문학은 기본

지금까지의 연구는 당대 지배 담론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기영 소설에 나타난 친일적 요소를 추출 배열해내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하나의 근본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와타나베 나오키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그는 이 시기 만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에서 일본의 만주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작품의 저항성을 읽으려는 시도에 대하여 “오족협화론뿐만 아니라 당시 만주국을 지탱하고 있었던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이념들은 이런 형태로 종래 국민국가에 관한 담론을 넘어서는 식으로 비판성을 보장하면서 동원의 담론으로 포섭되고 기능했던 것”<sup>7)</sup>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주의적인 시각은 반대의 입장에서도 제시될 수 있다. 즉 가끔씩 “오늘날왕도락토를 건설하는황국신민중에는 이와같은정신적 타락자가한사람도없어야한다.”<sup>8)</sup>와 같은 말을 던지면서, 실제 서사에서는 작가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이 가능한 것은 이 시기 만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은 겉으로는 일제의 국책에 찬성하는 식으로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저항의 담론으로 기능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 편의 문학작품이 체제나 구조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다면, 체제나 구조에 완벽하게 포섭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따라서 카프 작가들에게 일제 말기는 ‘일제 통치이데올로기’와 ‘마르크시즘’과 ‘작가의 고유성’이라는 세 가지 의미항 사이에서 중요한 시기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의 모든 작가들에게서 이 세 가지 의미항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동화된 작품은 없으며, 거기에는 작가만의 고유한 개성과 세계관이 균열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 균열의 지점에는 작가의 오랜 문제의식과

---

적으로 계몽을 목적으로 하며, 거기에는 계몽의 주체와 계몽의 대상, 그리고 그들 사이의 계몽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7) 와타나베 나오키, 2007,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화와 ‘만주’』, 『한국문학연구』 33집, 34쪽.

8) 이기영, 1943, 『처녀지』상권, 조선출판사, 350쪽. 앞으로의 인용시 본문중에 상·하권과 면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내적 필연성이 담겨 있다. 『처녀지』에는 1940년대 이후 이기영을 사로잡았던 특유의 생산력주의가 담겨 있다.<sup>9)</sup>

본고는 이기영의 일제 말기 작품을 관류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생산력주의라고 보았다. 이기영은 5년여의 기간 동안 6편의 장편을 발표할 정도로 맹렬한 창작활동을 한다. 이러한 행적은 이기영에게 생산소설이 단순하게 보신을 위한 호구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에게 생산소설은 자신의 문학적·정치적 신념이 뒷받침된 창작행위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신문에 연재되는 과정 없이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출판된 『처녀지』는 작가 자신의 내적인 신념이나 요구에 충실하게 창작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처녀지』를 둘러싼 외적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작품이 지닌 심상치 않은 의미가 발견된다. 그것은 『처녀지』가 이기영이 일제 말기에 그토록 정력적으로 펼쳐 보였던 생산력주의의 완성과 더불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생산력주의의 한계를 보여준 것과 관련된다. 이기영은 서사의 표면에서는 국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생산소설의 기본 성격에 충실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일제 말기의 국책이 전혀 불가능한 기획임을 강하게 환기시킨다. 그리하여 『처녀지』는 분열된 텍스트의 면모를 보인다. 이 해결할 수 없는 분열 때문에 작가는 『처녀지』(『삼중당서점, 1944. 9)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적극적인 창작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sup>10)</sup> 이

9) 일제 말기에 나타난 생산력주의에 대한 일본 측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모든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이 봉쇄된 당시에 마르크스주의를 대신하여 정책비판의 주류적 조류를 형성”(高島通敏, 1960, 『生産力理論』, 『共同研究轉向中卷』, 思想の科學研究會編, 平凡社, 204쪽)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력주의는 일본의 패전 이후 위장 전향으로 논의되었다. 두 번째는 생산력주의를 “생산력 증대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적 선택”이며 “객관적 필연의 이름하에 주체적 결단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현실조작을 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바로 익찬 시대의 제도정신과 어울리는 ‘무책임의 과학’으로 전락할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위의 책, 215쪽)고 평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때 생산력주의는 일본 군국주의 체제와 긴밀한 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10) 이기영은 “1944년 3월 나는 강원도 내금강 병이무지리로 전가족을 소개하여 가서 8·15 해방 전까지 2년 동안 손수 농사를 지었다.”(『나의 인간수업, 문학수업』, 인동, 1990, 77쪽)고 진술하고 있다.

글은 『처녀지』 연구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텍스트에 바탕하여 실증적인 연구 자세를 유지하고자 한다.

## 2. 이념적 연애가 낳은 선주의 죽음

『처녀지』는 모두 26장으로 이루어진 두 권 분량의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두 가지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남표가 정안둔이라는 마을에서 의술을 행하며 그 마을을 모범적인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개척의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남표가 대동의원 시절의 간호원인 신경아와 파혼한 경험이 있는 이선주 사이에서 벌이는 연애의 서사이다. 두 개의 서사는 분리된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논리에는 이념적 연애라 불리는 독특한 연애관이 가로놓여 있다.

남표, 신경아, 이선주의 연애는 명백히 1920년대의 자유연애론이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운 ‘붉은 연애’의 양상을 보인다. 붉은 연애, 즉 사회주의적 연애는 남녀의 이념과 사랑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sup>11)</sup> 이러한 사랑에서 남녀의 결합은 이념적인 결합과 평행하여 이루어지며, 이념과 사랑 중에 강조점은 전자에 놓여진다.<sup>12)</sup> 『처녀지』에서 사회주의적 연애의 구조와 메커니즘은 그대로이지만, 그 이념은 사회주의가 아닌 남표의 만주개척이념으로 변한다.

11) 엘렌 케이에서 시작하여 구리아가와 하쿠손에서 심화된 연애이상주의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지식인들에 의해 부르주아 계층의 사랑으로 비판받는다. 이것을 대신하여 계급해방론과 여성해방이 결합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붉은 연애’가 새롭게 대두된다. 공산주의자로서의 동지애, 사회주의적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주장하는 콜론타이의 ‘붉은 연애’는 사회주의 사상과 더불어 새로운 사랑의 모델로 관심을 끌었다. 본래 콜론타이의 연애론은 계급해방과 연애의 결합, 연애와 성의 분리, 여성해방 의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지영, 2011, 『역사에 사랑을 묻다』, 이숲, 186~199쪽)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사회주의적 연애’는 ‘계급해방과 연애의 결합’만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1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설야와 이데올로기의 서사학』(이경재, 2010, 소명, 54~90쪽)을 참고할 것.

이러한 사랑의 구조와 메커니즘은 이전에 쓰여진 『생활의 윤리』(성문당, 1942)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sup>13)</sup> 『생활의 윤리』는 이기영 소설로는 특이하게 남녀간의 연애문제만이 전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소설이다.<sup>14)</sup> 『생활의 윤리』는 응주, 준구, 일찌, 박달이라는 네 명의 청춘남녀가 벌이는 사랑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들이 펼치는 사랑의 서사 속에서 개인주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생활의 윤리’가 제시된다.

『생활의 윤리』는 크게 두 가지 삼각관계를 바탕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응주-준구-일찌’의 삼각관계와 ‘준구-일찌-박달’의 삼각관계가 그것이다. 이러한 삼각관계는 자연스럽게 ‘응주-준구’의 짝과 ‘일찌-박달’의 짝으로 정리된다.

응주와 준구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개인의 감정보다는 공동체의 직분이나 역할에 충실하다. 응주는 “남에게 받은바 이 은혜를 사회적으로 봉사하기에 성력을 다하자”<sup>15)</sup>고 생각하며, “분수에 넘치는것을 바라는 것은 일종의 허영이다. 그는 턱없이 허영을 바라는것 보다는 차라리 내힘에 적당한 일터에서, 생활의 즐거움을 찾고 싶었다.”<sup>(289)</sup>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특징은 “소담하고 담박한 성격”, 즉 “농민적 기질”<sup>(290)</sup>로 설명되기도 한다. 어려서부터 고생으로 큰 준구는 점잖으며 술 담배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13) 일찌 말기 이기영의 작품 중에서 『처녀지』와 마찬가지로 만주를 배경으로 한 『대지의 아들』에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덕성과 귀순 황식 사이에 사회주의적 연애의 모습이 나타난다.

14) 『생활의 윤리』는 모두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방향이 되자 석응주는 귀향한다. 선교부인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주는 취직하거나 진학을 하고 싶어하지만 집에서는 결혼할 것을 강요한다. 응주에게 채취자리 중매가 들어오지만 응주는 이를 거부한다. 마을에 응주와 한 반인 일찌와 그녀의 아버지 허담 그리고 일찌의 약혼자이자 일찌 동생의 가정교사인 이준구가 사냥을 온다. 응주는 백화점 여직원으로 취직하고 일찌는 이화여전에 진학한다. 준구가 응주를 찾아가간 것을 오해한 일찌 때문에 이준구는 일찌 집에서 나온다. 응주의 아버지는 병태한테 돈 줄 수 없게 응주는 병태로부터 약혼을 강요받는다. 응주가 우연히 같은 하숙집에 머물게 된 준구로부터 돈을 빌려 해결한다. 일찌는 신경쇠약과 늑막염으로 입원을 하고, 문병 온 박달과 연인 사이가 된다. 응주는 가짜 진보를 받고 고향에 내려갔다가 병태에게 봉변당할 뻔한다. 응주와 준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일찌는 박달의 아이를 낳으며 이후 박달은 종적을 감춘다.

15) 이기영, 1942, 『생활의 윤리』, 성문당, 289쪽. 앞으로의 인용시 본문 중에 면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그는 “향락주의”(397)나 “호구에 근심이 없는것을 다시없는 행복으로 알고 사는것”(396)에 반대한다. 준구는 응주가 어려움에 처하자 선뜻 자신의 돈을 내놓는다. 이 때 “다만 나역시, 구차하게 사는만큼 동지적으로 응주씨에게 잠시 호의를 보이자는것 뿐”(373)이라며, “그건 새시대의 명령”(373)이라고 말한다. 또한 “생명의 귀중한 보람은 다만 ‘사는데’ 있지않고, 그것을 높이는데 - 정신적으로 발전식히는데 있다.”(408)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일찌와 박달은 개인의 생활과 감정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 일찌는 산골 출신인 응주를 무시하기도 하고, “독살이 날때에는 여간 모질고 매섭지 않다가도 한번 푸러지면, 또 언제 그랬느냐 싶게 있는 대로 인정을 내쫓는”(312) 변덕스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박달은 서울 ‘중바닥’(278) 출신으로 재치있는 언동이 두드러진다. 그는 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주 “허무의 심연”(407)에 빠진다.

짝이 맺어지는 과정은 철저하게 각각의 인물들이 지닌 윤리에 바탕한 것이다. 일찌는 “늘 똥하니 말이없고, 오직 저할일만 꾸준이”(458) 하는 준구가 맘에 들지 않았고, 대신 “자기의 성미와 근사한”(459) 박달이를 선택한다. 당연히 작가가 이들 두 짝 중에서 더욱 가치를 두는 것은 응주와 준구의 짝이 구현하는 윤리이다. 이것은 서사의 결말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응주와 준구가 희망 찬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일찌와 박달은 불행한 사랑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일찌는 사생아를 남몰래 낳고, 박달은 행방불명되는 것이다.

『처녀지』의 남표와 경아의 사랑에서도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사적인 욕망이 철저히 억압된다. 남표와 경아의 사이에는 처음부터 섹슈얼리티가 억압되어 있다. 남표는 경아를 “누이와같이 대해왔지 그이상을초월한 적이 없”(상권, 43)다.<sup>16)</sup> 이 작품에서 남표는 처음부터 “난결혼을 양기로했으니까

16) 1980년 이전 중국의 문학에서도 계급투쟁의 승리는 탈성화된 비물질적이고 헌신적인 여성상을 통해 형상화되었다고 한다.(Prasenjit Duara, 2008, 『주권과 순수성 -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한석정 옮김, 나남, 304쪽) 자기부정적이고 자기희생적이며 탈성화된 여성은 사회주의 문학에서 긍정적인 여성상으로 빈번하게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요”(상권, 7), “난결혼은 할생각이없네.”(상권, 16)라는 말을 반복한다.

남표가 정안둔 마을에서 경아에게 처음 쓴 편지에는 정안둔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내용으로만 가득하다. 개인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없다. 경아는 운수창이 쓴 “北滿의處女地正安屯”(하권, 439)이라는 기사에 나타난 남표의 활약상을 읽고, 드디어 정안둔 마을로 찾아간다. 그 마을에 찾아갔을 때 남표와 경아가 나누는 대화는 남표가 정안둔 마을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로 가득하다. 흥미로운 것은 선주가 정안둔 마을에 내려온 것도 “北滿의處女地正安屯—醫學青年을 中心으로”(하권, 491)라는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라는 점이다. 경아와 선주 두 여인과 남표가 한 공간에서 재회하게 된 것은 ‘북만의 처녀지 정안둔’을 남표가 열심히 개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주가 호화로운 도시 생활에 빠져 있는 이기주의자일 때, 그녀와 남표의 사이는 한없이 멀 수밖에 없다. 농촌으로 향하던 기차에서 만난 선주에게 남표는 “년악마다!”(상권, 127), “년매춘부다.”(상권, 128)와 같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정도로 적개심을 보인다. 선주가 정안둔 마을에 찾아왔을 때에도 “년정신병자다……이런미친년은 내쫓어야한다.”(하권, 500)고 소리치른다. 그러나 선주가 남표의 개척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과거의 삶을 반성할 때 둘의 사이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과는 무관한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선주의 죽음 역시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중 정안둔에서 활동하는 남표의 모습에 선주가 감동했을 때, 선주는 도시에서의 호화로운 삶과 이기주의자로서의 자신을 철저히 반성한다. 그리고 남표의 여러 가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한다. 이제 선주는 남표와 결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sup>17)</sup> 그러나 선주가 남표와 결합을 시도하

17) 이러한 선주의 모습은 정인택의 『검은 흙과 흰 얼굴』(『조광』, 1942. 11)에 등장하는 혜옥을 연상시킨다. 혜옥은 온갖 스캔들을 일으키며 주인공 철수를 떠났지만, 만주 개척촌에서는 교육사업에 헌신하는 훌륭한 여자로 새롭게 태어난다. (윤대석, 2006, 『식민지 국민 문학론』, 역락, 210~211쪽)

는 순간, 선주는 남표와 경아의 동지적 관계에 또 다시 개입하게 되고, 그것은 거짓말로 둘 사이를 방해하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8)</sup> 따라서 선주가 새롭게 획득한 만주개척이념에 부합하면서도 남표와의 사랑을 유지하는 길은, 남표에게 남긴 편지에도 쓴 것과 같이 “오직한시 빗비죽는것”(하권, 524) 뿐이다. 선주의 죽음은 이념적 연애의 필연적인 귀결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남표와 경아 사이의 유일한 방해자였던 선주가 죽고 나자 오히려 남표와 경아의 관계가 시들해진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은 이러한 경아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물론 그는 지금도남표를 존경하고싶다. 그점은변함이없을것이다.

그러나어제 들에서 느끼는남표에 대한든감정과는 천양지차가있었다. 그때공상하던 장래의생활과행복감은 편편박살이나듯 여지없이깨지고마랐다. 그라말로일장춘몽이다.

차라리선주가 죽지않고그전대로 야릇한관계를맺고있었다면 그는고통중에도 오히려행복을느끼었을것이다. 그리고최후의승리는 자기에게있을줄안다. 남표와같이 결혼생활을 할수있다면말이다.

한데선주는 그점을멀리내다보고 이런죽음을자취했는가. (하권, 559)

선주가 계속 살아 있다면, “최후의 승리”는 경아 자신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주의 죽음은 선주가 과거 이기적이던 자신과 완벽하게 단절했음을, 동시에 남표의 삶이 표상하는 개척의 이념에 동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선주는 죽음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도 제거된 영원불멸의 이념적 표상으로 남는다.<sup>19)</sup> 따라서 이념적 연애의 관점으로 볼 때, 남

18) 선주는 남표가 정안돈으로 떠나던 날 전송을 나온 이가 신경 대동의원의 간호사 신경아라는 것을 알고 거짓말로 대동의원에 입원을 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남편과 남표가 죽고 구우라며 온갖 거짓말을 늘어 놓는다. “신경서가치있는 간호부가 귀찮게구러서지금복만으로 떠난다”(상권, 263쪽)는 것이다.

19) 남표는 의사시험을 보기 위해 신경으로 떠나기 전에 선주의 무덤에 들른다. 이 때 남표는 선주와 대화하는 환영에 빠진다. 이 때 선주는 “난두분의 행복을 위하고 싶었”(하권,

표와 가장 가까운 존재는 영원히 경아가 아닌 선주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선주의 죽음을 통해 남표는 선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히 변한다. “선주가죽지만않았어도 남표와경아는 예정한계획대로 그들의생활을 발전”(하권, 564)시켰겠지만, “큰진실성(眞實性)이 있”(하권, 537)는 선주의 죽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이다. 선주의 장례가 끝나자 경아가 신경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아와 남표의 관계는 멀어지고, 둘은 끝내 맺어지지 못한다. 결국 이 셋의 관계는 남표가 죽자 경아가 상주 역할을 맡고, 남표의 무덤이 선주의 무덤과 서로 다정하게 마주보는 것으로 끝난다.

### 3. 공동체와 연대성의 특권적 지점으로서의 노동

『처녀지』의 남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평범한 의사의 삶을 거부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약혼까지 한 남표는 선주와 헤어지게 되는데, 그 계기가 흥미롭다. 의전을 졸업하기 한 해 앞두고 남표는 “뜻하지 않은불행”(상권, 25)으로 학교를 그만둔다. 그 뒤 시골로 내려갔던 남표가 “잇해만에올라와보니”(상권, 25) 선주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리고 없다. 이에 크게 상심한 남표는 “만주나들어가보자!”(상권, 30)라는 생각에 봉천행 급행열차를 탄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마지막까지 남표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뜻하지 않은 불행’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단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남표는 “내가어떤 사정으로서울을 한잇해동안 떠나서부자유한몸이 되었다.”(하권, 474쪽)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 말을 통해 남표가 겪은 불행한

---

569쪽)다고 말하며, 이어서 “선생님은오래도록 사려주세요 당초의목적을직혀서 위대한 사업을해주세요……네! 나는그것을지하에서 정성껏빌겠지요”(하권, 570쪽)라고 속삭인다. 이에 감격한 남표는 선주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안으려고 한다. 이 때의 환영이 남표의 심층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남표의 가슴 속에 선주는 이상적인 여성으로 깊이 각인되었음이 분명하다.

사건이 정치적인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뜻하지 않은 불행’, ‘말할 수조차 없는 불행’, ‘부자유한 몸이 되었던 경험’을 간직한 인물이 바로 남표인 것이다. 이러한 남표의 이력은 그가 한때 일제와 대립하던 이념분자였음을 추론하게 만든다. 이후 남표가 보여주는 정안둔에서의 활동과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남표는 전향 사회주의자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 작품은 1944년이라는 일제 말기에 창작되었지만 작품 속 배경은 1930년대 후반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 나타난 남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자들에게 1930년대 만주는 힘겨운 삶의 공간인 동시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지양하여 새로운 역사적 단계가 가능한 시공으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일제의 만주에 대한 공식적인 체제 이데올로기는 오죽협화론과 왕도낙토론이다.<sup>20)</sup>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체제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전유하는데,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자본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즉 만주는 어떠한 진보적 기획도 사유하기 점차 힘들어지던 조선과는 달리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실험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종의 전향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남표는, 조선에서 새로운 전망을 찾지 못한 사회주의자들이 오죽협화론과 왕도낙토론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삼은 만주국에 커다란 기대를 가졌던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sup>21)</sup> 실제로 『처너지』에서 남표가 정안둔 마을에서 실천하는 운동들도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만주에 대하여 품었던 계획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20) 한석정, 199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출판부, 123~124쪽. 『처너지』에도 왕도낙토라는 말은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자주 언급된다. 남표는 정안둔의 부인들에게 “이만주 농촌으로하야금 왕도락토를건설하야 문화수준을향상하지 않으면안된다.”(하권, 418쪽)라고 강연하며, 경아 역시 정안둔의 마을 사람들을 향해 “오늘날왕도락토를 건설하는이마 당에 여러분도신흥만주국의 새일꾼으로 등장하는 개척민의 거룩한명예를 지시게된줄로 생각합니다.”(하권, 481쪽)라고 연설한다.

21) “1930년대 일본을 떠나야 했던 일본의 많은 좌익인사들도 자신의 이상을 만주국 농촌에서 실현”(프라센지트 두아라, 앞의 책, 278쪽)하고자 애썼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 남표는 무엇보다 노동하는 인간이다. 남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위대한실천을 통해서만 될수있는일이다.”(상권, 244쪽)라고 생각한다. 그는 “생활을찾자”(상권, 20), “오직진실하게 일생을살아가보자.”(상권, 29), “일하는사람에게밥이 없을린없다.”(상권, 60), “행위는 이와같이 존귀하다.”(상권, 244)와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은 농촌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처녀지』에는 선명하게 농촌과 도시의 이분법이 나타난다.<sup>22)</sup>

남표가 정노인에게 “의사가되라는 목적보다도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 농민생활을하고싶습니다.”(상권, 190)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진심으로 농민생활을 해보고자 한다. “이복만으로도드러온목적은 농촌생활에있으니까 우선농사를지여보고 싶다는것뿐”(상권, 191)이다. 남표는 의사로서 주로 활동하지만 그에게 의사로서의 일은 농민의 육체적 노동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표는 청진기를 든 농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는 한 푼의 이득도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농민들을 돌본다. 결국 진료값 대신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남표의 의료 행위는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남표의 모습은 이전 생산소설의 주인공들에 연결된다. 특히 『동천홍』(『춘추』, 1942. 2.~1943. 3.)에 나오는 장일훈과 흡사하다. 일본에서 예과까지 마치고 온 장일훈은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머리로만 사는 도시인의 삶을 벗어나 생활의 건설자로서 건설한 삶을 살기 위해 “생산지대”<sup>23)</sup>인 옥림광산에 가서 광부로 산다.

남표를 통해 나타나는 노동과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군국주의와의 관련성 속에서만 그 의미를 논의하기 쉽다.<sup>24)</sup>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사회주의적

22) 이기영의 만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농촌과 도시의 이분법이 나타난다. (이경재, 2012, 『이기영 소설에 나타난 만주 로컬리티』, 『한국근대문학회』 25호, 73~76쪽)

23) 이기영, 1943, 『동천홍』, 조선출판사, 82쪽. 앞으로의 인용시 본문중에 면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24) 실제로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문학적으로 추수하는데 급급했던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인 측면과 이기영 문학의 내적인 연속성 측면에서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sup>25)</sup> 이러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와 연대성의 특권적 지점으로서의 노동이라는 이상과 관련된다.<sup>26)</sup> 『처녀지』의 남표는 『동천홍』과 『광산촌』의 장일훈과 형규도 『대지의 아들』의 건오나 덕성이에 이어지는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주어진 사회적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동하여 향상된 생활을 누리는데 삶의 기쁨을 두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타인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처녀지』에서 남표는 자신이 전염될 위험이 있음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페스트에 감염된 만용이를 살리고자 한다. 이유는 “자기의비범한수완을 한번떨쳐보자는 야심” 때문이 아니라 “만용이를사랑하였기때문”(하권, 712)이다. 결국 남표는 자신의 일을 방해하던 거의 유일한 인물인 만용이가 페스트에 걸리자 목숨을 걸고 그를 치료하다가 본인이 페스트에 걸려 죽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

---

핵심적인 이념은 개인주의 배격이다. 대동아문학자대회의 개최 취지에 드러난 핵심적인 특징은 ‘서양 물질문화의 배격과 새로운 동양적 정신문화의 수립’이다. (1942. 11. 1, 「대동아문학자대회 취지」, 『일본학예신문』, 「大東亞文學者會議號」, 『문예』10권 12호, 1942. 12.) 이 대회에 참석한 조선문인들의 발언도 위에서 살펴본 대회의 전체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우리 문인들에게 배격해야 할 서양 물질문화의 핵심에는 개인주의가 놓여 있다. 2차 회의에서 유진오는 「결전문학의 이념 확립에 대하여」이라는 글에서 우리들 문학자의 사명은 미영격멸 정신을 작품화하고 그것을 통해 개인주의적 영미문화를 격멸하고 동양 고유의 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유진진 역시 「결전 문학의 이념 확립」에서 개인주의의 미영문학을 격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 문인들에게 있어 배격해야 할 서양 물질문화의 핵심에는 개인주의가 놓여 있는 것이다.

25) 그동안 일제 말기 이기영 소설에 나타난 상호경쟁과 집단주의는 군국주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의미가 부여되고는 했다. 그러나 이기영 소설에 나타난 생산력주의는 사회주의의 내적인 특징과 긴밀한 연결을 맺고 있다. 그러한 특징은 이들 작품에 나타난 노동형태가 스탈린 시기 소련의 대표적인 노동형태인 소련의 충격 작업과 비슷하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넘어서 생산력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군국주의와 스탈린주의가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했기에 가능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이기영의 생산력주의는 일제 말기라는 문제적 시기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조우하게 된다. (이경재, 2009. 8, 「일제 말기 이기영 소설에 나타난 생산력주의」, 『민족문학사연구』 40집, 36~68쪽)

26) S. Žižek, 2008,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한보희 옮김, 새물결, 203~204쪽. 나아가 이기영의 『처녀지』에서는 “과연여러십명이 일심으로공동경작(共同耕作)을하는능력은 비상하였다. 하루동안한일이 품꾼을그만큼사쓰면 몇일동안한만큼 성과를내었다. 군중의운력이란 무선운것을그들은 비로소깨다랐다.”(하권, 380쪽)는 진술에서처럼, 집단주의가 실제로도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려진다.

가 지향했던 ‘공동체와 연대성의 특권적 지점으로서의 노동이라는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 4. 개인이 소거된 공동체의 비극

남표의 최후는 페스트에 걸린 만용을 헌신적으로 치료하다가, 자신이 페스트에 걸려 죽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남표의 어깨 위에 놓였던 여러 가지 부하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귀결이 있다. 『처녀지』는 철저하게 개인과 공동체라는 이분법에 바탕한 작품이다. 이 중 강조되는 가치는 오직 ‘공동체’이다.

이러한 이분법은 이기영의 이전 작품인 『생활의 윤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생활의 윤리』에서 일종의 예시담(exemplum)<sup>27)</sup>으로 삽입된 『창살없는 감옥』은 이러한 ‘개인/공동체’라는 이분법을 잘 보여준다. 응주와 일찌는 이 영화를 함께 관람한다. 영화에서 갱생원의 원장은 자신의 직분에 너무나 충실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의사는 여원장이 갱생시킨 불량소녀와 연인이 되어 떠난다. 응주는 원장의 “건실한 생활태도를 충심으로”(하권, 457) 지지한다. 그러며 응주는 일찌가 준구에게 한 행동은 “의사가 원장을 배반한 것과 동교이곡”(하권, 457)이라고 생각한다. 이 예시담이 보여주듯이, 사람들은 개인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과 공동체의 역할과 논리에 충실한 사람들로 나뉜다. 이 때 작가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후자이다.

남표는 죽음 앞에 이르러서도 “한가지 가석한일이 있다면 그것은자기의목적한 사업이첫거름을 떼여노차마자 증도에 꺾기는 그뿐이다.”(하권, 720)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상태이다. 그는 “페스

27) 예시담이란 비유나 우화와 같이 하나의 권고나 메시지를 분명하게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예시담은 주제소설의 초기적이고 간단한 형태이다. (Susan Rubin Suleiman, 1993, *Authoritarian Fic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8)

트의침입이아니라도 날마다임상과연구에 잠시휴식할틈이없었는데 게다가 만용이까지 돌보면서 방역진을치기에 필사의노력을하였다.”(하권, 716쪽)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페스트가 아니라도 파로 등의 다른 이유로 언제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사실상 정안돈의 개척과 번영이란 거의 전적으로 남표의 헌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모든 문제는 결국 남표의 개인적인 몫으로 돌려지고, 남표의 어깨에는 점점 무거운 짐이 지워진다.<sup>28)</sup> 만용의 투서사건이 있었을 때도 남표는 해결방안으로 “현실을 이상으로높이는데는 권위가필요하다.”(상권, 335)는 생각에 의사시험을 준비하며, 만용의 문제는 결국 남표가 만용의 마약중독을 치료해주는 개인적 노력으로 해결된다. 『처녀지』의 남표가 페스트에 걸린 이후, 병에 걸린 이유가 “자기를잊어버린데원인이 있지않었든가!”(하권, 716)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없는 개척과 헌신은 끝내 자기의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표는 “전놀러단일줄도 모른답니다.”(상권, 71)라는 말처럼, 그야말로 많은 일을 한다. 정안돈은 물론이고 이웃 마을의 환자들까지 끊임없이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의술을 위해 실험에도 몰두하고, 농사기술의 혁신도 추구한다. 그리고 부인들을 위한 야학과 위생강좌 등의 문화사업에까지 골몰한다. 『동천홍』이나 『광산촌』에서 노동자들이 보여주었던 스타하노프형 인간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처녀지』는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여성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 남표가 “그들이정신수양을하는것도 그들의지식을 높이자는것뿐 아니라 그보담도그들의인격과 교양을높여서 자녀의가정교육에 유조한효력을견우지는것이 근본목적이다.”(하권, 417)라고 말하는 부분 등이 유력한

28) 남표는 “태풍과 싸우는 거함”(9)에 비유되고, 그의 “호방한 성격과 굳세인 정의감은 어떠한 위험이라도 돌파하며 전진하라는 기개와 투지가 만만하다.”(9)고 묘사된다. 소설의 처음부터 근대소설의 등장인물과는 구분되는 영웅적인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대동위원의 보조의사로 있을 때도 5호실 환자를 성실하게 진료하여 나중 정안돈에 정착하는 기본 토대를 만든다.

논거로 활용되었다.<sup>29)</sup> 그러나 『처녀지』에서는 비단 여성만이 도구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남표도 만주개척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위해 철저히 도구화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기영의 생산소설에서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노동의 강도와 공적인 가치를 향한 헌신은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고, 결국 『처녀지』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남표는 죽음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이기영은 이전 생산소설에서 과도한 노동을 감내하는 인간형을 창출해 보여주고는 했다.<sup>30)</sup>

북만주의 농촌을 향하는 기차 속에서 남표는 “흡사 전장에나가는 병사와 같이 비장한느낌”(상권, 115)을 받는다.<sup>31)</sup> 전사의 이미지 속에는 자기 파괴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데, 이것 역시 스타하노비즘(Stakhanovism)과 관련된다.<sup>32)</sup> 끝없는 생산성을 요구하는 스타하노비즘의 논리에는 한계가 없으며,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텅 비워버리는 육체적인 고통은 소비에트 숭고미의 엑스터시이다.<sup>33)</sup> 이 강렬한 엑스터시는 『처녀지』의 남표에게서 볼 수 있듯이, 몸(개인)의 파괴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29) 이 작품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현모양처가 될 것을 강요받는다. 현모양처의 가장 큰 역할을 양질의 국민을 낳는 것이다. 남표는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은현모양처를 이상(理想)으로삼는데 무엇보다도여자는 모성(母性)으로써 가장현명한부덕을가추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바와같이 어느나라고간에 부국강병이되려면 훌륭한자녀를 많이낳고 또한잘길러야되는겁니다.”(하권, 403쪽) 등의 말을 강황하게 한다. 부인들이 영양을 섭취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그들이 낳는자녀-제이세국민에게 건강을끼치자는 목적”(하권, 416쪽)이다.

30) 이경재, 2009. 8., 「일제 말기 이기영 소설에 나타난 생산력주의」, 『민족문학사연구』 40호, 58~59쪽.

31) 『처녀지』에서 남표 역시 과거에는 술, 도박, 심지어는 아편에도 중독되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방탕한생활속에서도 그의빈민은구제할길이 없었던것”(103)을 깨닫고, “전놀러단일 줄도 모른답니다.”(71)라고 말하는 인간이 된다.

32) 소련의 제 1차 5개년 계획 동안 ‘사회주의적 경쟁’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미국식 테일러리즘에 대응하여 강조한 노동형태이다. 알렉세이 스타하노프는 1934년에 수립된 모든 기록과 테일러주의의 기준을 깬 스타린의 5개년 계획의 돌격단의 상징이 된 사람이다. 주어진 작업시간 내에 그는 102톤(할당량의 14배)을 채굴하여 과학적으로 수립된 노동 속도를 초과달성한 돈바스 탄광 노동자였다. 스타하노비즘은 테일러주의적 리듬에 바탕한 작업의 규범을 깨뜨리려는 시도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노동량을 요구하였다. (Susan Buck-Morss, 2008, 『꿈의 세계와 파괴-대중 유토피아의 소멸』, 윤일성 김주영 옮김, 경성대 출판부, 143~145쪽)

33) S. Fitzpatrick, 1992, *The Cultural Front*,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p.169.

## 5. 결론을 대신하여 - 남표와 선주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

『처녀지』에서는 끝내 연애도 일도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결말은 『대지의 아들』이나 『동천홍』, 그리고 『광산촌』의 희망찬 결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대지의 아들』의 마지막은 개양툰 농장의 신세대 주역, 덕성, 복술, 귀순이가 삼방간 농장을 보며 감격하는 것이다. 그 감격은 삼방간 농장의 놀라운 생산력에서 비롯된다. 그 농장은 근검저축으로 개양툰보다 더 큰 수확을 내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비싼소작료를 물면서두 제가끔 수백원씩 저금을 하였다.”<sup>34)</sup>는 것이다. 개양툰 농장의 신세대 주역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희망찬 내일에 대한 각오를 다진다.

일제 말기 국책문학에서 이러한 낙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다. 『국민문학』이 창간 1년을 회고하면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미야자키 세이타로는 “국민문학이 요구하는 건설적이고 적극적이며 명량한 인물을 미처 제대로 그려내지 못”<sup>35)</sup>한 것을 국민문학의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이루어진 좌담에서 오카다 준이치는 “건설적이고 명량하다면 그 자체로 신체제적인 것”<sup>36)</sup>이라며, ‘명량성’을 신체제 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꼽고 있다. 제국 일본의 문학에서는 ‘명량성’과 ‘낙관성’이야말로 놓칠 수 있는 미학적 규범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37)</sup> 그런데 이기영의 『처녀지』는 핵심적인 주인공 두 명이 모두 요절하는 비극적 결말로 끝난다.

물론 죽음이 모두 전망의 포기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경향소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조명희의 『낙동강』만 보아도, 주인공 박성운의 죽음은 더 큰 희망과 전망의 성취를 드러내는 비장한 계기로서 기능했다. 『낙동강』에서 박성운이 죽은 후 백정의 딸이자 박성운의 애인인 로자가 유랑

34) 『조선일보』, 1940. 5. 31.

35) 1942. 11, 「국민문학의 1년을 말한다」, 『國民文學』, 287쪽.

36) 1943. 5, 「농촌문화를 위하여」, 『國民文學』, 293쪽.

37) 정중현 역시 “‘명량성’과 결부된 로맨티시즘은 대동아전쟁기 제국 일본의 국책과 결부되어 구상된 국민문학의 핵심적 명제”(2010,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동대출판부, 366쪽)라고 주장하였다.

민들과 함께 북간도로 떠남으로써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면, 『처녀지』에서는 남표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남표는 죽기 전에 일성에게 “너는공부를 힘써하면독학으로도 훌륭히성공할줄안다……그러니너나병원을 맡어가고 나의 후계자(後繼者)로서내가못한사업을 마저해 다구”(하권, 725쪽)라고 유언을 남긴다. 그런데 남표의 ‘후계자’인 일성이는 일자무식에 가까우며, 의학지식은 간호사인 경야보다도 모자라다. 일성이는 “독학으로 의사가될려”(하권, 708쪽)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부터가 의심스럽다. 남표의 죽음과 더불어 그의 목숨을 건 사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처녀지』와 같은 시기에 발표되었으며, 제목에서부터 생산소설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증산일로』(『방송지우』, 1944년 9월호) 역시 『처녀지』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증산일로』 역시 서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국책협력적인 전언에도 불구하고, 서사의 증후적 차원에서는 국책에 대한 뚜렷한 균열과 비판의 지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증산일로』의 주인공 가네무라는 산을 개간하여 이상적인 농촌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 7년 전부터 산골 마을 수리터에서 살아간다. 가네무라는 개량식 온상법을 개발하는 등 생산력 증대에 있어 나름의 성과를 얻기도 한다. 작품의 결말 역시 가네무라의 친구인 아마모도 역시 “자네야말로 시국을 정당히 인식한 산업전사”라고 크게 칭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네무라의 이러한 노력이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농촌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층민중들의 계몽과 그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전의 생산소설들과는 판이하게 『증산일로』에서 모든 사업은 단지 가네무라 개인의 시도로 한정되어 있다. 그는 “외딴 산골짜기에 마치 절간과 같이 혼자 살”<sup>38)</sup> 뿐이다.<sup>39)</sup> 그렇다면, 가네

38) 『방송지우』, 1944년 9월호, 17쪽.

39) 서재길은 『증산일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국책에 부응하는 내용을 그린 다른 방송소설에서 결말 부분에 이르러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비난에서 칭송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과는 확실하게 구별

무라의 시도는 철저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증산일로』의 가네무라가 철저한 고립 속에서 자신의 실패를 강하게 환기시켰다면, 『처녀지』의 남표는 죽음을 통해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기획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고립이자 분리이기 때문이다.

『처녀지』는 이기영이 만주를 배경으로 꿈꾸었던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기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길. 이때 이기영이 선택한 것은 절필이고 귀향이다. 그것은 물론 일제의 탄압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기영이 일제 말기에 새롭게 발견한 생산 소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던 것과 관련된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이기영의 문학적 진로는 바로 남표와 선주의 죽음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투고일 : 2012년 5월 15일, 심사개시일 : 2012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2년 5월 31일

된다.”(2011.4., 「강요된 협력, 분열된 텍스트」, 『민족문학사연구』 45집, 294쪽)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기영, 『대지의 아들』, 『조선일보』, 1939. 10. 12.~1940. 6. 1.  
 \_\_\_\_\_, 『동천홍』, 『춘추』, 1942. 2.~1943. 3.  
 \_\_\_\_\_, 1942, 『생활의 윤리』, 성문당.  
 \_\_\_\_\_, 1944, 『광산춘』, 성문당.  
 \_\_\_\_\_, 1944, 『처녀지』, 삼중당서점.  
 \_\_\_\_\_, 『증산일로』, 『방송지우』, 1944년 9월호.  
 \_\_\_\_\_, 『장끼』, 『방송지우』, 1945년 4·5월 합본호.  
 \_\_\_\_\_, 1990, 『나의 인간수업, 문학수업』, 인동, 77쪽.  
 「대동아문학자대회 취지」, 『일본학예신문』, 1942. 11. 1.  
 「국민문학의 1년을 말한다」, 『國民文學』, 1942. 11.  
 「大東亞文學者會議號」, 『문예』10권 12호, 1942. 12.  
 「농촌문화를 위하여」, 『國民文學』, 1943. 5.

### 2. 국내문헌

- 김진아, 2003, 「이기영 장편소설 『처녀지』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3쪽.  
 김 철, 2006. 6, 「프로레타리아 소설과 노스텔지어의 시공」, 『한국문학연구』30집, 59쪽.  
 서재길, 2011. 4, 「강요된 협력, 분열된 텍스트」, 『민족문학사연구』45집, 294쪽.  
 서지영, 2011, 『역사에 사랑을 묻다』, 이숲, 186~199쪽.  
 윤대석, 2006,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10~211쪽.  
 이경재, 2009. 8, 「이기영 소설에 나타난 생산력주의」, 『민족문학사연구』 40집, 36~68쪽.  
 \_\_\_\_\_, 2010, 『한설야와 이데올로기의 서사학』 소명, 54~90쪽.  
 이경훈, 2003,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오빠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271~297쪽.  
 이미림, 1999, 『월북작가 소설연구』, 깊은샘, 145~165쪽.  
 이선옥, 2003, 「우생학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젠더 정치 -이기영의 『처녀지』를 중심으로」, 『실천문학』, 2003년 봄호, 95쪽.  
 정중현, 2006. 4, 「1940년대 전반기 이기영 소설의 제국주의적 주체성 연구」, 『한국 근대문학연구』, 121~151쪽.  
 \_\_\_\_\_, 2010,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동대출판부, 366쪽.

조진기, 2006, 「만주개척과 여성계몽의 논리 - 이기영의 『처녀지』를 중심으로」, 『어문학』 91집, 한국어문학회, 504쪽.

한석정, 199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출판부, 123~124쪽.

### 3. 국외문헌

高島通敏, 1960, 「生産力理論」, 『共同研究轉向中卷』, 思想の科學研究會編, 平凡社, p.204.

渡邊直樹, 2007,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과 ‘만주」」, 『한국문학연구』 33집, 34쪽.

Buck-Morss, S., 2008, 『꿈의 세계와 파국』, 김주영 · 윤일성 옮김, 경성대 출판부, 143~223쪽.

Duara, Prasenjit, 2008, 『주권과 순수성 -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한석정 옮김, 나남, 304쪽.

Fitzpatrick, S., 1992, *The Cultural Front*,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p.169.

Suleiman, Susan R., *Authoritarian Fic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8.

Žižek, S., 2008,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한보희 옮김, 새물결, 203~204쪽.

## ■ Abstract ■

## A Study on Lee Ki Young's 『Virgin Soil』

Lee, Kyung-Jae

『Virgin Soil』 shows the completion and limitation of productivism in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On the surface Lee Ki Young shows as cooperating with imperial policy, in depth he shows that imperial policy in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is impossible. As a result, 『Virgin Soil』 becomes a fragmented text. Nam-pyo and Seon-ju's death show this split and crack.

The structure and mechanism of socialistic love is maintained in 『Virgin Soil』. But the ideology varies from socialism to exploiting Manchuria philosophy. Seon-ju dies in the process of ideological love. Nam-pyo is a conversion socialist. The activity that Nam-pyo attempted in Jeongandun is the project that socialists planned in Manchuria. Labor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life devoted to community in 『Virgin Soil』. This characteristic has the possibility to be discussed in relation to socialism and Lee Ki Young. This competition and groupism are involved in the labor as the privileged point of community and engagement. Lee Ki Young emphasizes community more than individual in 『Virgin Soil』. Nam-pyo becomes a tool to exploit Manchuria. The strength of labor and devotion to public value become worse in Lee Ki Young's novels written at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In result, Nam-pyo arrives at the death in 『Virgin Soil』. Nam-pyo's death shows that Lee Ki Young's plan is impossible.

Key words : Lee Ki Young,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productivism, ideological love, community, death